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수소버스 적극 활용

- 환경부, 강원도,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 등과 수소버스 전환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8일 강원도 원주시 인터불고 호텔에서 지자체-공공기관-관련 기업*과 함께 원주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의 수소버스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강원도, 원주시,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스케이 이엔에스, 현대자동차, 강원도 전세버스 운수사업조합

이번 협약은 강원도에 2026년까지 수소버스 100대 이상을 보급하고,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통근용, 행사용, 업무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기존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5개 공공기관(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도 공공기관 의무 구매·임차 제도에서 부여한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한 기관들이다.

환경부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 5월 4일 민간기업의 통근버스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 지난 6월 7일 서울시 시내·공항버스 전환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수소버스의 보급을 확대해왔다. 특히 이번 협약은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수소버스 활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수소버스 활용 사례가 공공기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우수사례로 전국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또한 공공기관, 지자체, 운수사 등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강원도 수소버스 보급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업무 협약식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과 대기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담당자	사무관	김유란 (044-201-6881)

1. 추진배경

- ☐ 공공기관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수소버스 활용을 확대하는 계기 마련
- ☐ 특히, 강원도는 올해 수소버스를 최초 도입할 예정으로, '26년까지 수소버스 100대 이상 보급할 계획

2. 업무협약식 개요

- ☐ (협약명)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수소버스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 ☐ (時/所) '23. 6. 8.(목), 11:30~12:05 / 원주 인터블고 호텔
- ☐ (협약기관) 환경부, 강원도, 원주시,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도 전세버스조합, 현대자동차, SK E&S
- ☐ (협약내용) ①강원도 원주에 2026년까지 수소버스 100대 이상 보급, ②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통근용, 행사용, 업무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기존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여 활용
- ☐ (세부일정)

시간	내용
11:30~12:05 (35')	▶ 원주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수소버스 활용 확대 업무협약식
(10분)	-인사말씀
(10분)	-강원도 수소정책 발표
(15분)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